

의 작품들이 모두 내추럴하고 동양적인 감성들이 많아 좋은 평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며, “아우라아우라필름은 그동안 사실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감동의 영상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당장 한편의 광고제작보다는 앞으로 미국이라는 선진 광고문화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4회 대한민국광고윤리대상 시상



지난 9월 6일 한국광고 문화회관에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조병량)가 주최하고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광고윤리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방송위원장상에는 삼성화재의 ‘안내견’ TV광고가, 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삼성그룹의 ‘고맙습니다’ 인쇄광고가 각각 선정되었다. 삼성화재 광고는 안내견과 시각장애우가 함께 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표현한 메시지가 기업정신과 잘 맞물려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삼성그룹 광고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자는 내용으로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제1회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벌



MBC와 한국방송광고공사, 그리고 고양시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벌 2007(KAFE:

Korea TV Advertisement Festival)이 광고, 삶 자체 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펼쳐졌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은 18일 저녁 개그맨 김용만의 진행으로 고양 아람누리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

고대상, 최우수광고상, 카피상, 작품상, 모델상 등 17개 부문에 대한 시상과 이효리, 이승기, 노브레인, 윤하 등 인기가수들의 펼치는 축하공연이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페스티벌 둘째날부터는 방송광고와 관련된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특별행사들이 KINTEX에서 개최됐다. ‘한국CF역사관’, ‘CF월드’, ‘세계3대 광고제 컬렉션’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광고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가 하면, ‘광고와 사회’, ‘한국 최고의 고수가 이야기 하는 광고의 세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돼 방송광고를 학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리엔박 스토리

박상훈 전 동아제약 상무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리엔박 스토리를 오픈했다. 리엔박 스토리는 박상훈 전 동아제약 상무와 홍익대 이길형 교수가 공동대표로 설립했다. 박 대표는 “시대발전, 소비자발전, 미래발전을 통해 브랜드의 Something new story를 찾는 데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소 :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홍익대학교 사회교육관 203호
전화 : 3142-9915

FCB코리아, DRAFTFCB로 사명 변경

FCB코리아가 지난 8월 27일부로 ‘DRAFTFCB’로 사명을 변경,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7-4 형지제2빌딩 7층 (135-888)
전화 : 3438-3600 (변동없음)

에드리치, 사무실 확장 이전

오는 11월 1일 창립 2주년을 맞는 에드리치(대표:정만석)가 지난 9월 17일 강남구 대치동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 삼안빌딩 9층
전화 : 562-6400